

'99년도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 전자업계는 IMF 환파에 따른 극심한 내수불황지속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압박, 동남아에 이은 러시아의 외환위기 및 주요시장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구조조정 확산에 따른 실업급증과 내수불황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침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 어느때 보다도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 분석과 내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을 통해 우리 전자업계의 경영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코자 전자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와 전자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중심으로 「'99년도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세미나」를 지난 27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자업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에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 경기불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은 반도체 단가 하락의 진정 등으로 수출이 8.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생산이 5.4% 증가 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전자산업이 내년에 이같이 국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금년의 수출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이 단가하락(-20.1%) 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CDT 등 주종품의 단가하락이 어느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엔화도 강세기조에 있으며 이 조사시점의 원화대 달러환율이 1,400원대였으며 국내경제도 이미 금년에 최저점에 이르러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된다.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시 간	주 제	발표자
08:10 ~ 08:30	전자산업동향 및 '99년 전망	본회 상무 박재인
08:30 ~ 08:50	'99년 가전산업 전망	대우전자 이사 주영섭
08:50 ~ 09:10	'99년 정보산업 전망	삼보컴퓨터 부사장 김두수
09:10 ~ 09:30	'99년 통신산업 전망	삼성전자 상무 김용민
09:30 ~ 09:50	'99년 전자부품산업 전망	삼성전기 이사 조경수
09:50 ~ 10:10	'99년 반도체산업 전망	삼성전자 이사 정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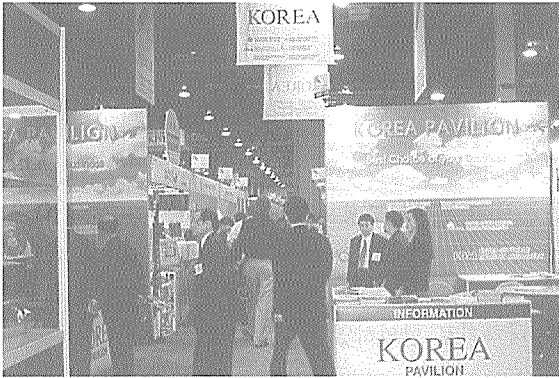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초점」

COMDEX Fall' 98 한국공동관 참가

- 전시회 기간중 제품 계약실적 작년 대비 3배이상 -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KOTRA,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및 협회가 함께한 세계최대 컴퓨터 전시회인 COMDEX Fall '98(라스베가스 11. 16 ~ 11. 20) 한국공동관이 풍성한 상담 및 계약실적을 거두고 11월 20일 폐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력있는 최첨단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인력, 자금



및 해외전시경험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해 상품의 홍보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수출 산업화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우리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상담효과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사업추진 및 상담요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번 한국공동관에는 하드웨어업체 35개사 52개 부스, 소프트웨어업체 22개사 22개 부스로 전체 57개사에 74개부스가 운영되었다.

이번 한국공동관의 5일간 상담금액은 185백만\$, 계약금액 22,141천\$로 집계되어 작년에 비해 각각 96%, 215%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가 총 3,200여명이었으며 이중 42% 정도인 1,354명이 본격적 거래상담을 실시하였다.

바이어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PC 케이스로 디자인면에서 대만 보다 월등히 앞선데다가, IMF이후 원화상승 등으로 가격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상TV, IC단말기, LCD용 모니터의 경우도 상품화 경쟁에서 대만보다 앞서 주목을 끌었다.

기술의 우수성으로 관심을 받은 품목은 PC보안

시스템 및 S/W, Web운영제작 S/W, PC인쇄용 S/W,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및 관리 S/W 등으로 많은 바이어로 부터의 기술협력 요청이 줄어 있었으며, 미국의 NASA, 공군, 육군, 보잉사 등으로 부터도 적극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 졌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 등 주최측은 내년도 컴텍스 전시회도 올해 보다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부스 디자인 및 형태 등을 개방형으로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여 상담효율을 극대화 시킬것이고 규모면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8,800ft₂)으로 추진 할 것으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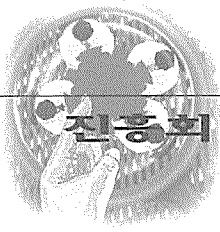
<한국공동관 업체의 주요품목별 상담실적(11. 16~18)>

(단위 : US 1,000\$)

	상담액	계약액
컴퓨터케이스	43,992	7,036
디지털 마우스	771	210
스피커	4,137	752
언어학습기	4,894	1,560
지문인식모듈	1,926	550
화상전화 등	2,660	300
LCD모니터	31,148	5,250
웹 제작도구 S/W	16,750	1,000
디지털 카메라	650	315
모뎀관련제품	8,224	1,019
기타	69,646	4,149
합계	184,798	22,141

전자부품산업육성 및 수출증대방안 조찬간담회 개최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4일 팔레스호텔에서 삼영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롬코리아, 삼성전기,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전자공업협동조



진흥회 활동사항

합, 산업자원부, KAIST,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등 업계, 연구소, 관련부처등이 모여 전자부품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박재인 상무가 전자부품산업육성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부품의 산업현황, 특징 및 문제점, 해외마케팅, 수급기업간협력, 국제협력, 제도개선분야, 기술/인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고 동태책보고서 최종안을 정리 및 확정하여 대표자회의에 보고키로 결정하였다.

가전업계 현안회의 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등이 모여 가전업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제조물책임법,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가전업계의 입장과 각사의 의견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다시 정립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비키로 하였다.

코드레스폰 내수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한창, 대우통신, 해태전자, LG전자, 한화정보통신 등이 모여 코드레스폰 내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에 대해 업계의 의견과 진흥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또한 각사의 신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품질보증제도 개선방안관련 회의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이 모여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진흥회와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통신기기 형식승인제도에 관한 워크샵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양평에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이 모여 통신기기 형식승인제도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 유선통신기기 사후관리제도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도입 등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설명과 함께 전기안전부문에 대한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시험 적용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 인정약정(MRA)체결동향 및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또한 향후과제로서 전기안전부문, MRA 부문, 사후관리, 동일기기확인제도등을 채택하였다.

C-TV부품(PTC Thermistor)표준화 회의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대우전자, LG전자, 자화전자등이 모여 PTC Thermistor 표준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용자와 공급자가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

저항규격, 허용공차규격, 최대사용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해콘덴서 표준화 회의 개최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삼화전기, 대우전자부품,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등이 모여 전해콘덴서 표준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해콘덴서 표준화와 관련 전해콘덴서 전극박 시험방법을 보완하고 알루미늄박중 + 박에 대해 국산화가 안되었으므로 중고압에 대한 박은 국산화 개발과제로 고시를 추산키로 하였다.

청소기표준화 회의 결과 보고

본회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18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국KDK,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등이 참가하여 청소기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워코드(전류허용용량별, 형태별), 용도별, 코드길이, 색상등에 대한 표준화와 차기회의시 각사별 코드길이 방향통일, 코드색상(흑색, 회색) 및 색도 통일 등을 채택하였다.

모니터용 콘넥터 표준화 회의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대우전자, LG전선, 히로세코리아등이 모여 모니터용 콘넥터에 대한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USB콘넥터 형태 및 소요수량과, 수평, 수직 형태의 콘넥터 사용 및 수입, 표준화 과제로 규격화가 되는데로 수직형에 대해 개발자금지원을 위한 고시화를 추진키로하고 규격서 초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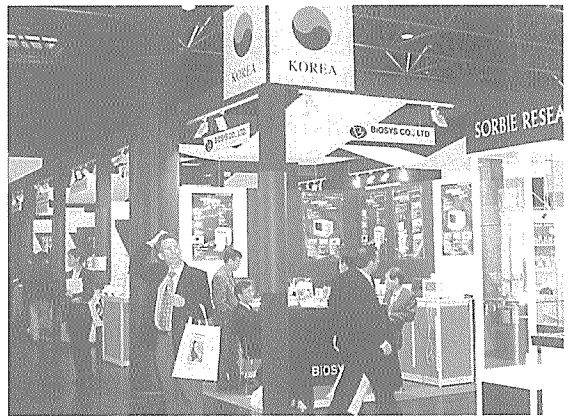
LG전자에서 작성키로 하였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관한 규정」개정관련 회의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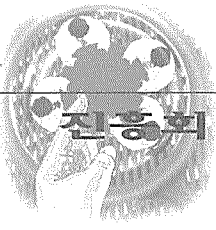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전자등이 모여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관련 유사 표시제도 일원화, 시험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모든 대상제품에 대하여 정부지정없이 자율적 시험허용, 세탁기 적용대상을 모든 가정용 세탁기로 확대, 등급기준 적용1년후 최저효율기준적용, 라벨상의 불필요한 표시내용(시험기관, 발급번호, 일시) 삭제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독일의료기기 전시회 본회주관 공동참가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전문전시회인 Medica '98에 본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4일간 자원메디칼, 한신메디칼, 협신메디칼, 정원정밀, 바이오스페이스, 메가메디칼, 바이오시스, 미키인터내셔널, 수일개발, 정상테크노, 인포피아, 조양메디칼, 세인전자 메스메드시스템, 메디아나



진흥회 활동사항

등 15개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본회가 적극 지원한 가운데 과거 어느때보다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터키, 이집트등에서 많은 바이어와 계약체결하였으나 EU의 경우 우리업체의 CE마크가 없어 많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업체의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본회에서는 CE마크획득에 적극 지원키로 하였으며 또한 국산의료기기수출이 매년 30%이상 고도성장을 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해외의료기기 전시회에 진흥회가 주관이 되어 계속 참가를 요청하였다.

한편 '98Nedica에서는 상담액 23백만불, 계약액 1,000만불을 달성하였다.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 회의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해대전자, 케드콤, 프로칩스, 기룡전자, 대영전자, 동원전자, 흥창, 신원, 삼성물산, 대릉정밀, 삼성전기등 11개사가 참가하여 위성방송수신기 수출

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코자 생산자재공동구매추진, 해외시장공동개척을 위해 유명전시회를 진흥회 주관으로 참가, 국내외 위성방송수신기 시장 및 업계현황작성, EU의 수입관세인하를 위해 세번변경, 수출시장에서의 과당경쟁방지등에 대해 업계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업계 회의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한화정보통신, 현대전자산업, 맥슨전자등이 모여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업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남미등 해외수출시장에서의 국내업체의 지나친 경쟁으로 CDMA 단말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과당경쟁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GSM 수출업체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통해 과당경쟁방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진흥회 11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11. 3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임원회의	코오롱 등 5개사	부품산업부
11. 4	이동전화단말기 수출분과 회의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한화정보통신, 현대전자산업	정보산업부
11. 4	파나마 전자의료기기 EDCF 사업추진 회의		정보산업부
11. 4	전자부품산업육성 및 수출증대방안 조찬 간담회	(팔레스호텔)삼영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로움코리아, 삼성전자	부품산업부
11. 5	IBB Mission 관련 업무 협의	Mr. Bob Manning, Deputy head	국제부
11. 5	가전산업 현안문제 협의 실무자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전산업부
11. 6	'98 Comdex Fall 참가업체 전체회의	콤포텍시스템외 57개사	정보산업부
11. 6	코드레스폰 내수영업 담당자 회의	(10층 회의실) 해태전자, LG전자, 대우통신	정보산업부
11. 6	KES '98 내부 평가회의		국제부
11. 6	유선전화기 내수담당자 회의	삼성전자 등 6개사 12명	정보산업부
11. 9	가전 리사이클링사업 추진위원회	가전3사 물류담당임원	가전산업부
11.10	KES '98 참가업체 평가회의		국제부
11.10	품질보증제도 개선 관련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가전산업부
11. 8~11.13	아시아전자연맹 SGIV회의 참가	(일본도쿄)	국제부
11.11~11.12	케이블 모뎀 워크샵	삼성전자등 80개사	정보산업부
11.12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안) 공청회 참가	(기계진흥회)	부품산업부
11.13~11.14	통신기기 형식승인 분과 Workshop	(경기도 양평)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정보산업부
11.14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코오롱, 새한미디어, SKC, SKM, LG전자	부품산업부
11.16~11.20	'98 Comdex Fall 전시회 참가	콤포텍시스템 등 57개사 (미국 라스베가스)	정보산업부
11.18	청소기용 파워코드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기, 한국KDK, 대우전자	부품산업부
11.18~11.21	독일 메디카 전시회 참가	한산메디칼등 14개사	정보산업부
11.19	C-TV 부품 표준화 회의	대우전자, LG전자, 자화전자	가전산업부
11.19	가전 자동화 재활용 간담회		가전산업부
11.19	전해코덴서 표준화 회의	삼영전자, 삼화전기, 대우전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부품산업부
11.19~11.20	마그네트론 기술위원회 워크샵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부품산업부
11.20	전자정보산업 경기조사 위원회	(팔레스호텔) 삼성전기등	가전산업부
11.20	모니터용 콘넥터 표준화 회의	LG전자, 대우전자, LG전선, 히로세코리아	부품산업부
11.23	"21세기 전자산업 육성방안"응역사업 심의회	(부품연구소 회의실)	가전산업부
11.24	내부 수출 대책 회의	(대회의실)	국제부
11.24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관련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산업부
11.2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관련 간담회	(산업연구원)	국제부
11.25	제조물 책임법 관련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가전산업부
11.25	전자부품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방안 조찬간담회	(팔레스호텔) 산업계, 관련기관	부품산업부
11.26	위성방송수신기(SVR) 수출분과 회의	해태전자, 케드콤, 프로칩스, 기릉전자, 대영전자	정보산업부
11.26~11.27	IEC TC-39 WG1, 2 실무위원회		부품산업부
11.27	사적복제보상금제 관련회의	LG전자, 대우전자	가전산업부
11.27	'99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인터컨티넨탈호텔) 전자정보산업관련인사 약200명	가전산업부